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농정활동 기대...

이 영 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먼저 우리양계산업을 이끌어 주실 신임회장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양계인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신임회장님께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바램은 크게 양계축산농민들이 마음 놓고 품질 좋은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부지원과 우리가 생산한 양계산물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양계인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농정활동을 기대해 보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축공제의 보장 확대입니다.

가축공제(보험)의 경우 소나 돼지는 법정전염병 외에 기타질병으로 인한 폐사의 경우에도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닭의 경우는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해주고 기타 화재로 인한 폐사와 풍수재해로 인한 폐사의 경우에만 보장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계를 하면서 법정전염병 외에 아무리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기타 질병으로 인한 폐사와 특히 산란계의 경우 계란의 생산성저하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질병치료를 위하여 약품구입비와

강제 환우에 따른 사료급여에 들어가는 원가상승요인으로 양계업의 영위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가축공제의 보장확대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방역활동에 따른 시설 및 약품 등 정부의 보조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수입개방 시에 외국의 양계산물의 점유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므로 우리의 양계산업의 보호를 위한 방역시설지원과 소독약품의 정부지원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을 바랍니다.

셋째는 친환경의 생산 환경을 위한 계분처리문제입니다.

우리양계인들 스스로 계분을 처리하기에는 양계농민의 여건 및 양계산물의 판매에서 얻은 소득수준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계



분 공동처리시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는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 사업의 정착과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입니다.

수급조절에 따른 생산기반의 확립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 시 소비홍보를 위한 의무 자조금 사업의 정착과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유도와 육계 및 계란 가공사업의 개발과 양계관련조합 지원을 통한 육성으로 양계산물의 올바른 소비유통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양계산업이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사업 참여입니다.

양계산물의 수입개방 시에 우리 양계산업이 보호되고 외국 양계산물과 차별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계산물 브랜드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양계협회의 기능과 양계조합의 기능을 융합하여 올바른 양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계**

백세미 질병 근원부터 치유하도록 법적 뒷받침에 힘써야

최 성 천

요한농장 대표/ PS 친목회 회장

다의 해에 17대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기간(2005년 2월 22일부터 2008년 2월) 동안 양계업계는 수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자유무역시대에 많은 나라와 FTA 타결로 외국 양계산물 수입이 보다 손쉬워져 국내 양계업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정책, 악취방지법 발효, 웰빙으로 우리 양계산물은 수입산물과 경쟁뿐만 아니라 친환경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계인 생존을 위해선 종계, 산란계,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농가들이 계종을 떠나 하나로 뭉칠

